

찾아가는 세미나(대전)/동계학술세미나와 정기총회

대전시의 계약/조달 개선을 통한 재정 건전화 방안

일시 : 2013년 12월 17일(화)

장소 : 대전시 서구청 대강당

한국지방계약학회

행/사/일/정

시 간		내 용
12 · 17 (화)	14:00~14:30	개회 축사: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지방계약학회 회장
	14:30~15:50	◆ 제1주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표: 홍종현(한국법제연구원) 1 사회: 옥무석(이화여대 법학과) 토론: 안영진(창원대 법학과) 한창환(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호미영(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사무관) 김은석(대전광역시 감사관실 사무관)
	15:50~16:00	휴식
	16:00~17:30	◆ 제2주제 지방자치단체의 조달행정 개선방안 발표: 이용환(경기개발연구원) 23 사회: 강기홍(서울과학기술대) 토론: 최두선(대전광역시 감사관) 최인호(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영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제3주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방안: 경상남도 자산관리 효율화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성시경(서울대) 41 사회: 신종렬(방송대, 전 한국지방계약학회 회장) 토론: 이용철(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장) 박경돈(한국교통대) 문광민(대전대)
	17:30~18:00	총회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김홍갑입니다.

오늘 우리 지방재정공제회와 한국지방계약학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금년에는 지역현안에 대한 해법제시에 중심을 두는 “찾아가는 세미나” 형식으로 개최하는데, 그 개최지가 대전이어서 더욱 뜻 깊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전국 각지에서 참석하여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 행사를 같이 준비해주신 한국지방계약학회장님,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대전시관계자님들, 그리고 지방재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학회 회원 및 자치단체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정공제회는 '95년 이후 매년 지방재정 관련 세미나를 개최·후원 해오고 있으나, 그동안 세미나 주제가 자치단체 실무와 연계되지 못하고 총론적 접근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찾아가는 세미나” 개최 등 지역맞춤형 세미나 개최로 지역별 재정현안에 대한 진단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발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금번 세미나가 다루는 대전의 부채현황 및 관리개선 방안, 자산관리 개선과

재정효율화 방안 등은 대전의 지역현안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모처럼 마련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학계 전문가, 우리 재정공제회가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게 토론하면서 적실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지방재정공제회도 내년이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주력 사업인 공제사업 외에 최근 들어 옥외광고센터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사무 신규 수탁 등으로 지방재정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45개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우리 공제회는 지방재정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지방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세미나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 여러분과 학회회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재정발전의 진정한 주역이신 지방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3년 12월 17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김홍갑

●●초대의 글

한국지방계약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을 마무리하는 언저리에서 한국지방계약학회의

찾아가는 세미나(대전)/동계학술 세미나와 정기총회를 대전에서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함께 찾아가는 세미나의 연장에서 개최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연구하는 한국지방계약학회는 정부와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한편 정부의 의한 일방적 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학계의 자생력을 키우고 우리 사회의 쟁점을 정리하여 정치(精緻)한 이론으로 정립하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현실의 대안을 찾는 노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열어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지방계약학회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법, 행정, 회계의 다양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아직 함께 모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회원 여러분의 주인의식과 적극적 참여가 절실합니다.

연말 총회를 겸해 찾아가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느끼는 것은 그러한 자기반성에 기인합니다. 이번 세미나 개최를 위해 학회 출범 당시부터 지대한 기여를 하여 주신 최두선 대전시 감사관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12월 17일

한국지방계약학회 회장 이원희

